

# 주가 폭락·환율 급등... 혼돈의 금융시장

코스피 1652.71...15개월래 최저  
환율 1195.81원...또 30원 폭등

코스피가 지난해 6월 이후 가장 낮은 1650대로 주저앉았고 코스닥 시장은 하한가 종목이 190개에 이를 정도로 주식시장이 수렁에 빠져 들었다. 그리스 채무불이행(디폴트) 우려 등으로 글로벌 금융위기가 단기간에 끝나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확산하자 겁에 질린 개인 투자자들이 매물을 쏟아낸 탓이다.

외환시장에서도 원·달러 환율이 달러당 30원 가까이 폭등하며 1200원 돌파는 시간문제다. 증권시장에서는 외국인 자금 이탈 우려로 금리가 올라가는 등 주식, 외환, 채권시장이 서로 얽혀서 추락하고 있다.

26일 한국 금융시장의 주요 지표는 그리스의 부도 가능성에 대한 공포감으로 얼어붙어 떨어졌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달러화에 대한 원화 환율은 지난 주말보다 29.80원 급등한 1195.80원으로 거래를 마쳤다. 지난해 8월 31일 1198.10원 이

후 13개월여 만에 최고 수준이다. 환율은 이날 14.00원 씩 1180.00원으로 거래를 시작해 잠시 1169.00원으로 밀렸지만, 곧바로 1190원 부근으로 치솟았다. 환율은 이후 1180원 선에서 공방을 벌인 뒤 장 막판에 주가 하락폭이 커지자 1200원선 근처까지 올라갔다.

주식시장은 코스피가 연중 최저 기록을 하루 만에 갈아치웠다. 코스피는 지난 주말보다 44.73포인트(2.64%) 내린 1652.71로 마감했다. 종가 기준으로 지난해 6월 10일(1651.70) 이후 가장 낮다. 이로써 지난 8월 9일 세운 장중 연중 최저치인 1684.68마저 무너졌다.

이날 폭락은 예상 밖이었다. 지난 주말 미국과 유럽 증시가 강세로 돌아서 최근 급락세는 진정될 것으로 기대됐다. 실제로 코스닥지수는 이날 6.73포인트(1.51%) 오르며 장을 시작했다. 그러나 상승세는 오래가지 못하고 하락 반전했다. 장 초반



“약이 없네...” 환율 급등 유럽 재정위기 확산과 세계 경제 침체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면서 26일 코스피는 전날보다 44.73P(2.64%) 내린 1,652.71, 달러화에 대한 원화 환율은 전날보다 29.8원 급등한 1,195.81원에 거래를 마쳤다. 사진은 외환은행 본점 달링룸. /연합뉴스

40억원까지 순매수 규모를 늘렸던 개인이 일시에 매물을 쏟아내자 지수가 급전직하했다.

코스닥지수는 전날보다 36.96포인트(8.28%) 폭락한 409.55로 마감했다. 코스닥시장에서는 투매현

상으로 무려 190개 종목이 하한가로 떨어졌다. 장 막판 환율이 급등하자 보험업계에서 움직이던 채권 금리도 뛰었다.

박상현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IMF 연차총회에서 유럽 재정위기

를 타개하기 위한 구체적인 해법이 나오지 않은 데 투자자들이 실망했다”며 “G20 차원의 공조가 논의되고 있지만,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임동룡기자 exian@... /연합뉴스

## 금값 이틀만에 1만4천원 하락 환율 상승 여파...3.75g 기준 25만원

국제 금 시세 하락의 영향으로 국내 금값이 1돈(3.75g) 기준으로 이틀 만에 1만4000원 하락했다. 26일 금지금업체인 ㈜한국금거래소에 따르면 국내 금값은 소비자가 3.75g을 살 때를 기준으로 22일 26만4000원이었으나 23일 26만원, 24일 25만원을 기록하며 이틀 만에 1만4000원 떨어졌다. 25일에는 거래가 없어 가격을 책정하지 않았고 26일에는 역시 25만원으로 24일과 같은 가격을 유지했다. 소비자가 같은 양의 금(순도 99.9% 금괴 기준)을 팔 때 받을 수 있는 돈은 22일에 24만2000원이었다가 23일 23만8000원, 24일 22만5000원으로 이틀 만에 1만7000원 하락했으며 26일에는 다시 3000원 올라 22만8000원이 됐다. /연합뉴스

## 실손보험료 20~30% ‘깡충’

6월부터 인상 잇따라...3년 갱신형은 최대 41%

상해·질병 의료비를 보장하는 실손보험 보험료가 약 20~30% 오르기 시작했다. 최대 인상폭은 40%를 넘는다.

실손보험 갱신시기가 올해 하반기부터 내년까지 특히 많이 몰려서 국내 실손보험 갱신 부담은 가중될 전망이다.

26일 금융감독원과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손보사들은 지난 6월부터 실손보험의 갱신보험료를 올려놓고 있다.

3년 갱신형 상품 가입자를 기준으로 보험료 인상은 평균 19~26% 정도 추계됐으며, 경우에 따라 최고 41%에 달한다. 이 가운데 가입자의 나이가 많아지면서 보험료가 올라가는 자연증가분(연령증가율)은 9~16%다. 나머지는 그동안 인상요인(손해증가율)이 쌓여 불가피하게 올랐다고 손보협회는 강조했다. 최고 한도가 25%인 손해증가율은 이번에 평균 10% 안팎 올랐다.

예컨대 2008년 6월부터 매월 보험료 2만1천970원을 냈던 45세 남성 가입자는 48세가 된 올해 6월부터 5070원(23.1%) 오른 2만7040원씩 갱신 보험료로 내야 한다. 이 납성이 내는 갱신보험료는 자연 증가분 3550원과 위험증가분 1520원을 반영해 책정됐다. 의료비 상승, 의료시설 이용 증가 등으로 2007 회계연도 83.0%로 안정적이었던 실손보험 평균 손해율은 2010 회계연도 104.0%까지 치솟아 위험수위를 넘었다. 그러나 손해율이 크게 오른 데는 업계의 출혈경쟁과 불안전판매가 극에 달한 2008년 하반기부터 생·손해보험이 역마진을 감수하면서 상품을 판매한 탓도 있다. 금감원은 갱신 보험료 부담이 커질 것을 우려해 업계와 테스크포스(TF)를 꾸려 월 보험료를 만기까지 최대한 균등하게 만드는 ‘평균보험료’ 방식의 상품을 이른바 올해 말까지 개발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 ‘대기업 되기 위한 다섯가지 공식’

IGM, 내달 5일 무등파크호텔서 특강

IGM(세계경영연구원) 전성철 회장의 특별강연이 오는 10월 5일 광주 시 동구 무등파크호텔에서 열린다.

광주지역 경영인들을 대상으로 한 이번 강연은 IGM이 론칭한 온라인 지식 멘토 ‘Aha!CEO’ 오픈을 기념, 무료로 진행되며 주제는 ‘대기업이 되기 위한 다섯 가지 공식’이다.

전 회장은 올해 ‘매경 이코노미’가 선정한 한국 ‘경영구루’ 11위에 이름을 올렸으며 전 회장이 이끄는 IGM에서 수석한 CEO는 전국적으로 1만 2000여명을 넘어섰다.

IGM 관계자는 “직원을 창조적 파트너로 만드는 사람중심경영과 창조를 유도하기 위한 지식경영, 지식을



〈전성철〉

공유해 흐르게 하는 소통경영 등 전 회장의 이번 강연은 위대한 기업을 꿈꾸는 광주 지역 경영자들에게 영감을 주고 공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참석 대상은 각 기업의 CEO와 임원 및 전문직 종사자들이며 가능하면 경영에 참여하고 있는 2~3세 경영자들도 수강할 수 있다. 문의(신사업본부, 02-2036-8530) /임동룡기자 exian@kwangju.co.kr

## 대출사기 피해액 3배 늘었다

1105건에 13억원...휴대폰 광고 메시지 조심해야

금감이 필요한 서민을 상대로 한 대출사기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지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에 접수된 대출사기 피해건수는 1천105건으로 전년동기(542건)에 비해 103.9%나 증가했다고 26일 밝혔다.

피해금액은 전년동기(4억5000만원)의 3배 수준인 13억원으로 집계됐다.

금감원은 대출사기를 막기 위해선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통한 대출광고에 현혹되면 안된다고 조언했다.

금감원은 “문자메시지를 통해 대출광고하는 업체는 제도권 금융회사 아닌 불법사금융업자일 가능성이 높으니 응대하면 안된다”며 “‘당일 대출가능’, ‘마이뉴스대출가능’, ‘저금리대출 가능’ 등의 광고문구에 절대 현혹되면 안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금감원은 대출을 해준다면서 보증료나 공탁금 등 돈을 요구하는 것은 모두 대출사기라고 지적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전형적인 대출사기 기는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통한 무작위 대출광고 ▲일반인이 전화로 대출신청 ▲사기업자가 보증보험료, 전

산작업비, 공증료 등 명목으로 수수료 요구 ▲수수료를 대포통장으로 송금 ▲사기업자 잠적 등의 순서로 진행된다.

금감원은 “대출을 위해 예금통장이나 카드를 보낼 것을 요구하는 것도 대출사기로 절대 요구에 응해선 안된다”며 “대출사기업자는 제도권 금융회사를 사칭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금감원 홈페이지를 통해 인허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거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금감원은 대출사기 피해를 입은 경우 신속히 경찰서에 신고하고, 피해 금액을 송금받은 금융회사에 연락해 해당 계좌의 지급정지를 요청해야 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 “국토부 산하기관 13곳 ‘빚더미’ 부채 190조 하루이자 170억원”

국토부 국감 정희수 의원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의 부채가 190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정희수 의원은 26일 국정감사에서 “2010년 기준 국토부 산하 주요 공공기관의 총 부채는 190조원이 넘고, 하루 이자가 169억원에 달한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정 의원에 따르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도로공사, 한국철도공사 등 13개 공공기관의 부채가 190조9415억원이고 이 가운데 이자가 발생하는 금융성 부채가 145조 6988억원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지난해 이자비용은 6조1953억원으로 하루 이자가 169억7300여만원에 달했다. /연합뉴스

**자유투어**  
www.jaUtour.com  
광주지점 062)371-3757

고품격! 초특가 상품 [준5성급] - 타사대비 비교불가! -

**호남지역 출발**

**무안출발 아시아나항공(OZ)상품**  
[8/27~10/28출발(화,금)]  
북경,만리장성 4일 **379,000** 원-  
북경,만리장성,명13릉 5일 **429,000** 원-

**무안출발 동방항공(MU)상품**  
[8/22~10/27출발(월,수,목,토)]

상해,항주,소주 4일 **379,000** 원-  
상해,항주,황상 4일 **589,000** 원-  
상해,항주,황상,삼청산 5일 **679,000** 원-  
상해,장가계,주가각 5일 **919,000** 원-

**마감임박**

**10월15일 단하루!**

**무안공항출발 방콕전세기!!**

관광5일	589,000 원
고품격JAU+ 관광5일	799,000 원
품격 골프5일(54H)	1,099,000 원
광양헤리 큐슈3박4일	179,000 원

8/28~12/21(매주 수,일출발)

**인천공항 출발**

**초특가 상품 -9,10,11월 출발기준-**

- 자유투어만의 특별가격 -

**유럽**

서울3국(프,스,이) 8일	1,690,000 원-	터키 7대도시 완전일주 9일	1,690,000 원-
서울5국(프,스,이,우) 10일	2,090,000 원-	알펜타워+서울6국12일	1,790,000 원-
홍콩싱가포르 3국 7일	1,790,000 원-	스페인,포르투갈10일	1,990,000 원-
벨크 동유럽5국9일	1,290,000 원-	이집트,그리스,터키 11일	2,190,000 원-

**동남아**

방콕,파타야 5일	449,000 원-	5성급 캄보디아 5일	599,000 원-
세부 4/5일	349,000 원-	JAU+ 베트남 캄보디아 6일	549,000 원-
보라카이 적항 5일	559,000 원-	베트남 북부 5일	449,000 원-
싱가폴 5일	659,000 원-		

**중국**

홍콩싱가포르 북경4일(5성급호텔)	269,000 원-	계림(이강유람,관암동굴)4일	449,000 원-
홍콩싱가포르 상해4일(폴옵션)	349,000 원-	항공이동 서안,구체구5일	1,149,000 원-

**미주/남태평양**

미동부+캐나다 완전일주 9일	2,690,000 원-	호주,뉴질랜드남북서 10일	1,990,000 원-
미서부 3대해안+미동부 완전일주 13일	3,290,000 원-	노티 미서부,태평양일주8일	1,390,000 원-
시드니,골드코스트 6일	1,649,000 원-	3대캐년 미서부완전일주	1,690,000 원-

**예/약/상/담** | 광천점 350-6226 | 북구점 267-8587 | 상무점 652-2974 | 수완점 574-1300 | 조선대점 227-8255 | 진월점 382-5353 | 침단점 233-2627 | 총장점 222-9796 | 하남점 954-9700